

축 사

(제17회 비치발리볼 대회)

2022. 7. 30.(토) 00:00 / 명사십리 해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신지면 출신 허 중 회 입니다.

제 17회 비치발리볼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와 응원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명사십리해변 자랑 한가지 간단하게 하고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명사십리 해변은 공기 비타민이라고 하는 산소음이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십리에서 하루를 보내면 산소캔 2만 6천개를 마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호흡을 2만 6천번이나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짜로 제공되는 명사십리 산소캔 많이많이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